



2월18일 '2·18 대구지하철 참사희생자 1주기 범시민 추모식'에서 동화사 스님들이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어두운 터널 지나 극락왕생 하소서’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1주기 추모식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구시 전역은 지난해 발생한 지하철 참사를 떠올렸다.

이날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앞 도로 변에서는 1년 전 지하철 참사를 통해 생명을 잃은 192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유족과 부상자 가족,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8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1주기 범시민 추모식'이 열렸다.

국화와 풍선으로 흰색 물결을 이룬 가운데 희생자들의 넋을 모시는 진혼복을 시작으로 살아남은 자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퍼포먼스', 유가족·정부인사·추모위원 등의 분향, 헌화에 이어 6개 종교의 종교의식이 진행됐다. 불교 의식을 진행한 동화사 스님들은 반야심

경 봉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 외에도 이날 대구시 곳곳에서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생명의 역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추모음악회와 그림전, 참사 다큐멘터리 상영 등의 추모 문화행사가 열렸다. 김천사와 감천북지재단은 대구어린이회관 연주홀에서 테너 심송화, 소프라노 주선영 씨가 출연하는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선광사는 사찰 외벽에 가로 9m 세로 7.5m의 대형 괘불탱화를 걸고 야외에 법단을 설치해 지하철 참사 196명의 원혼을 달래는 49일간의 1천배 정진 기도에 들어갔다.

대구-배지선 기자

고속도로 - 댐 건설로 사찰 피해 심각

용산사, 요사채 균열·식수 사용 못해 인각사, 습도 상승으로 법당 부식 우려

고속도로 건설과 댐 건설로 인한 사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조폐위기에 처한 정도 용산사와 화북댐 건설로 문화재에 심각한 손실이 우려되는 군위 인각사 피해현장을 취재했다.

용산사-고속도로 거리 불과 15m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수행환경 파괴 및 차레 분지에 소개된 바 있던 정도 용산사.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피해정도도 사찰 조폐의 위기로까지 치달고 있다. 이에 용산사 스님과 신도 50여명은 2월 16일부터 청도를 내리 건설현장 앞에서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속도로 공사구간과 용산사간 직선거리는 15m. 공사가 시작되면서 용산사는 먼지와 소음, 수행환경 훼손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는 요사채 균열, 대웅전 기와 파손, 서까래 균열 등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는 산맥을 가로로 횡단하며 산의 맥을 끊었고, 식수의 오염으로 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대웅전 시멘트 축대에 균열이 가

고 주춧돌이 침하돼 지난해 9월 문화재위원과 밀양대 화학연구소에서 조사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대웅전 건물 1cm정도 틀어지고 앞쪽으로 침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용산사는 "시공사인 금호산업은 1993년과 96년 한국도로공사가 영남대 학술조사단에 의뢰한 환경평가에서 직선거리 15m에 위치한 용산사를 이천(移遷)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용산사의 이견과 그동안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금호산업 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소액 보상하며 나머지는 보험 처리하겠다"는 말만 2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산사는 대구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관계기관에 진정을 접수하는 등 공사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인각사 15km 거리에 댐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저술한 장소인 군위 인각사도 인근지역에 화북댐이 건설함에 따라 훼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청도 용산사 스님과 신도 50여명이 2월18일 공사현장에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수자원공사는 인각사에서 1.5km 떨어진 곳에 높이 50m 길이 340m 규모의 화북댐을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올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댐이 세워질 경우 습도 상승과 안개 등의 기후변화로 인각사 목조건물에 심각한 부식과 훼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사 중 장비 및 공사 트럭의 통행으로 인한 먼지와 소음 진동은 사적 374호로 지정된 인각사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인각사의 주장이다.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2002년 하반기 경 화북댐 건설사업단이 인각사 주변 조

경사업에 대한 약속과 민족 성지라는 차원에서 인각사 주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 산 확보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태도를 바꿔 인각사에 책정된 예산을 반으로 줄이고 댐 건설로 인한 훼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보류한 채 댐공사를 진행해 왔다. 또 상·하류 주변 설계를 마친 수자원 공사는 인각사를 제외시킨 채 일괄대안설명회를 갖는 등 댐 건설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금정산 일대 야생차 균락 발견

주영택 씨 5곳 확인

부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야생차(茶) 나무가 금정산 일대에 서식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향토 사회자인 주영택 가마골향토역사 연구원 원장은 '동래에 차밭골이 있었다'는 옛 문헌을 토대로 지난 5년 간 차 균락지를 조사한 결과 금정산 일대에 서식지 5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차 서식지는 전자공고에서 식물원 입구에 이르는 동래 차밭골, 만덕사지 차밭골, 범어사 차밭, 금정산 계명봉 차밭, 구서 물방골 차밭 등이다.

만덕사지 차밭골의 경우 서식지 중 가장 많은 수백 그루의 차나무가 발견됐고 나머지 서식지에서는 수십 그루씩이 발견됐다. 차나무는 우거진 소나무 틈새에서 서식하고 있었다.

금정산 인근지역에 모여 있던 야생차 재배자들은 1898년 동래 온천장이 개발되면

서 점차 사라졌다.

주 원장은 "당시 사찰에는 차를 생산하는 다전(茶田)이 있었으며 사찰이 많은 금정산 일대에서 야생차가 대량 재배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금정산의 새 명물인 차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천미희 기자

대구 대불어 지도자 상견례

2월 14일 대구지역 어린이법회 법사 스님과 지도자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구지구는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상견례를 갖고, 분기별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어린이 포교에 힘써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모인 영남불교대학, 관오사, K2 성무 일승사, 서봉사, 불광사, 삼보사 선생님들은 어린이법회 운영상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배지선 기자

퇴임 교사들 '실버티처'로 맹활약

영어동화 구연, 수학, 명심보감, 아동미술, 토론, 논술 등 매일 강의내용이 달라지는 방과후 교실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실버티처 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퇴임교사들이 '키드카드 스쿨'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버티처 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퇴임교사가 '키드카드 스쿨'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실버티처에서 활동 중인 퇴임교사는 11명. 최고령인 김상갑(71) 영어 선생님을 비롯 수학, 한문, 미술, 서예 등 가르치는 과목도 다양하다. 지식 교육 위주의 학문과는 달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자상함으로 자

연스런 인성교육을 겸하고 있어 지역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복지법인 범어사 노인자활 도와

부산금정노인인력지원기관의 실버티처 교실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키드카드 스쿨', 주부 대상의 '주부문화교실'에서는 퇴임한 교사들의 오랜 교육 경험이 눈부시게 살아난다.

한편 실버티처에서 활동 중인 퇴임교사는 11명. 최고령인 김상갑(71) 영어 선생님을 비롯 수학, 한문, 미술, 서예 등 가르치는 과목도 다양하다. 지식 교육 위주의 학문과는 달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자상함으로 자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성파 스님 중국서 '성파화집' 펴내

폭빛 염색으로 전통 염색 재현에 힘쓴 통도사 서운암 주지 성파 스님이 무위 자연의 세계를 수록하며 그려낸 <성파화집>을 냈다.

중국에서 국가 1급화가인 왕문방에게 그림을 배운지 1년여만에 현지에서 엮은 <성파화집>에는 중국과 한국의 산수를 그린 산수화 36점을 담았다. 스님은 화집을 내면서 "그림은 나에게 있어 수행의 과정"이라고 밝히며 "그림 속에 담긴 마음의 세계를 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지에 먹으로 그린 밑그림 위에 수묵과 담채로 채색을 한 스님의 그림은 색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을 만큼 천연 염색으로 내면화된 스님만의 색감이 산수화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특히 가까이 보이는 산, 멀리 보이는 산뿐만 아니라 높고 낮은 산들을 무수히 쌓아올려 탐을 연상시키는 그림이나 사찰이나 부도탑 등의 그림은 수행자로서의 지향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기도 하다.

2월 6일 다시 중국으로 떠난 스님은 2008년까지 북경에 머물며 그림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며 그곳에서 전시회도 가질 계획을 밝혔다. 도예에도 일가를 이룬 스님은 통일을 염원하며 팔만대장경을 도자기로 구워낸 16만 도자 대장경을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천미희 기자

통도사·부산불교대 졸업식

통도사 불교대학 졸업 및 수료식이 2월 19일 통도사 삼법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고급교리반 손관옥 거사를 비롯 경전반, 기초교리반, 사경반 등의 과정을 수료한 264명의 졸업생이 수료증을 받았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4일 대학 4층 법당에서 가진 2003학년도 졸업식에서 경전연구과정 7기 40여명을 배출했으며 마산의 경남불교대학 3기 수강생들은 15일 성주사 설법전에서 졸업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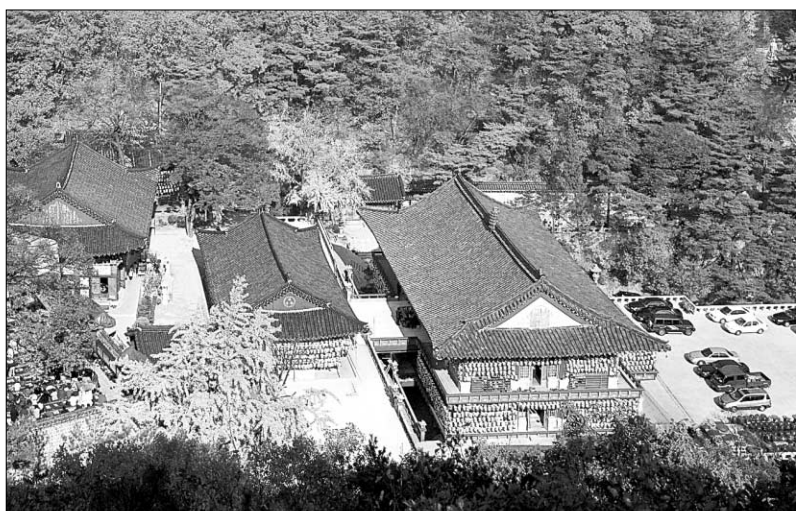
살아서 공덕짓고 참회하는 생전예수재 및 49일 지장기도

국태민안기원 고승초청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호국참회 관음기도 도량 삼각산 도선사는 경제회복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고승 초청 대법회'를 오는 3월 2일(음 2월12일)부터 4월13일(음 윤2월 24일)까지 49일 동안 7일에 한분씩 7회에 걸쳐 봉행합니다. 법회시간은 오전 11시.

무무 동참하시어 감로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를 얻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dosunsa.or.kr



생전예수재 날짜	초청법사
초재 3월 2일(음 2월12일)	도영 큰스님(포교원장)
2재 3월 9일(음 2월19일)	지하 큰스님(중앙총회회장)
3재 3월16일(음 2월26일)	암도 큰스님(전 교육원장)
4재 3월23일(음 윤2월 3일)	인환 큰스님(경국사 회주)
5재 3월30일(음 윤2월10일)	종범 큰스님(중앙승가대학 총장)
6재 4월 6일(음 윤2월17일)	무진장 큰스님(전 포교원장)
7재 4월13일(음 윤2월24일)	법장 큰스님(총무원장)

문의 : 993-3161

호국참회 관음기도 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지 禪默 慧慈 합장